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와 토익 학습 효과의 연관성 연구*

이동명** · 홍광희*** · 황규홍****

〈차 례〉

1. 서론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결과 및 논의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와 토익 점수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두 가지 요인(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써의 토익과 사회적 필요성으로써의 토익)과 학생들의 토익 점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부산 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6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영남대학교 영어교육과
****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분석 결과, (1) 고학년 학생들이(3학년과 4학년) 저학년 학생들보다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써의 토익'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사회적 필요성으로써의 토익'에 대한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2) 학생들의 토익 점수와 토익의 태도 요인들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토익, 대학생 토익 태도, 토익 점수

1. 서론

영어는 국제회의나 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회화에 이르기 까지 국제적인 공용어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영어사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속에서 정부, 기업 및 교육기관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어능력 검증 시험인 토익(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토플(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리고 텝스(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등을 통해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인 영어능력 시험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토익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본래의 기능인 의사소통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 또는 국제적인 업무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1982년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가장 널리 사용된 공인 영어능력 시험으로 알려져 있다. 토익의 경우 2008년까지 누적 응시자수가 1,800만 명에 이르고 2008년 한 해 응시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1] 또한 2008년 전체 응시자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9%) 응시자의 연령대는 20-25세(대학 재학생 연령대)로 나타났다.[2]

대학생들의 높은 토익 응시율과 졸업 후 토익 시험 결과가 취업과 직결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에서는 토익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토익 수업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e.g., 남정미와 김성애, 2009; 신광인과 오치성, 2012; 주미진, 2009). 뿐만 아니라, 비록 많은 수의 연구는 아니지만 효과적인 토익 수업 개발의 일환으로 토익 시험 및 수업에 대한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주미진, 2009; 성창섭, 2012; 이동명 외, 2013).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토익 수업 개발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토익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으로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토익 학습의 효과, 즉 토익 점수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학습자들의 토익 시험 결과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토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토익과 관련된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혹은 특강 형식으로 개설하고 있다(e.g., 남정미와 김성애, 2003; 신광인과 오치성, 2012; 주미진, 2009). 토익에 대한 이러

1) http://www.ybm.co.kr/ad/news_read.aspx?seq=945 참고.

2) http://www.ybmsisatne.co.kr/info/info_data_view.asp?seq=2459 참고.

한 사회적 관심도와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성을 고려하여 지난 몇 년 동안 토익 수업과 관련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선행연구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비록 양적인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성창섭(2012:121)은 토익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1) “토익과 영어학습자의 영어 능력과의 연관성” 그리고 (2) “효과적인 토익 수업/교재 개발”과 같이 크게 나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영어학습자와 영어 능력과의 연관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명관(201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익 독해 수업에 중점을 두어 어휘강조와 문법 강조의 효과성에 대해 비교하였다. 주미진(2009)은 대학 토익 수업에서 전통적인 외국어 교수방법과 의사소통 중심 교수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 비교하였고, 남정미와 김성애(2003)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토익 수업의 효과성에 대해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해서 논의하였다.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서 토익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토익 수업과 토익에 대한 대학교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수는 아주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토익 수업에서 전통적인 외국어 교수방법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주미진(2009)은 대학교 영어 학습자들이 토익 시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탐험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하였고, 성창섭(2012)은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 방법으로 설계된 연구에서 부산지역 대학교 재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에 대해 탐험적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미진(2009)과 성창섭(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동명 외(2013)는 대학생 토익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를 7개의 요인(영어능력 향상도구, 사회적 요구, 토익 이외의 추가 학습의 필요성, 토익을 위한 학습 노력, 토익 점수에 대한 부담감,

토익 점수의 실효성, 학습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기존의 대학생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혹은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는 토익 수업의 효과성과 연관 지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토익에 대해 특정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토익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토익 수업/교재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명 외(2013)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토익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 요인 중, 많은 토익 학습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토익 시험은 영어능력 향상 도구' 그리고 '토익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요인과 대학생들의 토익 성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산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65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1학기에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3] 설문 문항은 편의적 표집(convenient sampling)을 통해 모집된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작성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된 토익 인식에 대한 문항은 35문항이다. 최종 설문지는 응답자의 신상 정보와 관련된 8문항을 포함해 총 43문항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신상정보과 관련된 문항은 학생들의 전공학과, 학년, 성별, 토익응시 여부, 토익응시 회수, 토익을 준비한 기간, 일일 평균 토익 학습 시간, 가장 최근에 응시한 토익 점수에 대한 것이고, 토익 인식에 대한 문항은 5점 라이커트(Likert)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성창섭(2012)이 사용한 설문지와 동일한 설문지이다.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회수되었다.

최종 설문지는 설문에 참여한 652명의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모두 회수되었다. 응답 설문지의 결측치(missing data)는 문항별로 최대 15명에서 최소 1명이었으며, 한 학생이 최대 4문항에서 최소 1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결측치를 평균치로 대신하는 것이 결측치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c.f., Allison, 2002) 전체 응답자에 비해 결측치를 가진 응답자의 수가 크지 않고, 각 응답자별 결측치 문항수가 많지 않아 각 문항의 평균치로 결측치를 대신하였다. 응답 설문자료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TATA 12.0(Intercooled version)을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학생들의 토익 성적과 토익 인식에 대한 요인(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 토익은 사회적인 요구)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총 652명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중 약 절반이 남학생이었고(52.3%), 토익 응시 평균 횟수는 약 1회 정도였다. 토익 응시 평균 준비기간은 약 8개월 정도였고, 하루 평균 약 1시간(0.85시간=50분) 정도 토익 학습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토익을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생각하는 요인에 대한 점수는 평균 27.97점(총점 50점)이었고, '토익은 사회적 요구'로 생각하는 요인에 대한 응답 점수는 평균 18.46(총점 25점)이었다.

전체 응답 학생들의 인적사항에 이어, 토익 성적과 학생들의 토익 인식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351명 학생들의 토익 학습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평균 약 3회 정도 응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토익 학습 기간은 평균 9개월 정도, 토익 평균 점수는 약 570점 정도, 토익을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생각하는 요인 점수는 평균 27.54점이었고, '토익은 사회적 요구'로 보는 요인에 대한 응답 점수는 평균 18.73점이었다.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요인 평균 점수는 전체 응답자들의 요인 평균 점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은 토익 응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토익 학습에 대한 기술통계값을 나타내고 있다.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토익 응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년이 낮으며(평균 1학년) 토익 준비기간도 평균 6개월로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 8개월 보다 2개월 짧게 나타났다. 토익에 대한 태도에서는 '영어능력 향상' 요인 평균 점수는 28.47로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27.9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적 요구' 요인 평균 점수 역시 18.15로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18.4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들의 기술통계값 (n=652)

	평균 or %	표준편차	범위
학 년	2.03	1.18	1-5
성별 (남학생: n=341)	52.3%		
토익 응시횟수	1.42	2.08	0-10
토익 준비기간(개월)	7.99	5.28	6-36
일일 평균 토익 학습 시간	0.85	1.05	0-6
요인1: 영어능력 향상 도구	27.97	4.19	12-40
요인2: 토익은 사회적 요구	18.46	3.08	8-25

Note: 1) 토익 준비기간 범위에서 6은 6개월 미만을 의미함.
2) 일일 평균 토익 학습 시간 단위는 시간; 범위에서 0시간은 1시간 미만을 의미함.

<표 2> 토익 응시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기술통계값 (n=351)

	평균 or %	표준편차	범위
학 년	2.64	1.19	1-5
성별 (남학생: n=188)	53.6%		
토익 응시횟수	2.63	2.21	0-10
토익 준비기간(개월)	9.31	6.51	6-36
일일 평균 토익 학습 시간	1.22	1.20	0-6
최근 응시 토익 점수	570	127	400-900
요인1: 영어능력 향상 도구	27.54	4.19	12-39
요인2: 토익은 사회적 요구	18.73	3.08	8-25

Note: 1) 토익 준비기간 범위에서 6은 6개월 미만을 의미함.
2) 일일 평균 토익 학습 시간 단위는 시간; 범위에서 0시간은 1시간 미만을 의미함.
3) 최근 응시 토익 점수에서 400은 400점 미만이며, 500은 500점대, 600은 600점대, 700은 700점대, 800은 800점대, 900은 900점 이상을 의미함.

<표 3> 토익 응시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기술통계값 (n=301)

	평균 or %	표준편차	범위
학 년	1.31	1.19	1-5
성별 (남학생: n=153)	50.83%		
토익 준비기간(개월)	6.35	2.42	6-36
일일 평균 토익 학습 시간	0.42	0.61	0-3
요인1: 영어능력 향상 도구	28.47	3.78	19-40
요인2: 토익은 사회적 요구	18.15	2.94	10-25

Note: 1) 토익 준비기간 범위에서 6은 6개월 미만을 의미함.
2) 일일 평균 토익 학습 시간 단위는 시간; 범위에서 0시간은 1시간 미만

<표 4>는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인적사항 변수들과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보는 태도 요인과의 상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학년이 높아질수록 토익 응시 횟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r=0.40, p<0.001) 토익 준비 기간도 더 길어지고(r=0.28, p<0.001) 더 높은 토익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0.32, p<0.001). 하지만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토익을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보는 요인의 측정값이 낮아졌다(r=-0.13, p<0.05). 즉, 응시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토익을 영어 실력 향상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익 점수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높았고(r=-0.19, p<0.001), 토익 응시 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52, p<0.001).

<표 4> 토익 응시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 도구' 요인과 변수들간 상관관계(n=351)

	(1)	(2)	(3)	(4)	(5)	(6)	(7)
(1)학년	1.00						
(2)성별	-0.06ns	1.00					
(3)응시횟수	0.40***	-0.04ns	1.00				
(4)기간	0.28***	-0.09ns	0.47***	1.00			
(5)학습시간	0.19**	0.01ns	0.32***	0.14**	1.00		
(6)토익점수	0.32***	-0.19***	0.52***	0.32***	0.33***	1.00	
(7)영어능력향상	-0.13*	0.03ns	-0.01ns	0.02ns	0.07ns	-0.05ns	1.00

Note: 1) ns=non-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2) 응시횟수=토익응시횟수; 기간=토익준비기간; 학습시간=일일토익 학습시간; 영어능력향상=토익을 '영어능력향상 도구'로 보는 요인 측정 점수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토익 점수와 토익을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보는 태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의 경우, 토익 학습과 관련된 변수들(학년, 토익 응시횟수, 토익 학습기간, 토익 학습시간)을 고려하면서 토익을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보는 태도와 토익 점수와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 즉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보는 태도가 낮을수록 토익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β=-1.24, p>0.05). 하지만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였을 때 응시횟수가 많은 학생들의 경우 더 높은 토익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1.79, p<0.001).

<표 6>은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인적사항 변수들과 토익을 '사회적 요구'로 보는 태도 요인과의 상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토익을 '사회적 요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졌고(r=0.27, p<0.001) 토익 응시 횟수가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 요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r=0.13, p<0.05).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토익 점수와 토익을 '사회적 요구' 생각하는 태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의 경우, 토익 학습과 관련된 변수들(학년, 토익 응시횟수, 토익 학습기간, 토익 학습시간)을 고려하면서 토익을 '사회적 요구'로 보는 태도와 토익 점수와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 즉 '사회적 요구'로 보는 태도가 낮을수록 토익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β=-1.38, p>0.05). 하지만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였을 때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은 토익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β=12.68, p<0.05) 응시횟수가 많은 학생들의 경우 더 높은 토익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2.11, p<0.001).

<표 5> 토익 응시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토익점수와 토익을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보는 태도 요인과의 다중회귀분석 결과(n=351)

	회귀분석 모델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값	607.51***	479.23***	479.32***
	(42.48)	(40.22)	(39.47)
영어능력향상	-1.35ns	-0.82ns	-1.24ns
	(1.52)	(1.31)	(1.29)
학년		12.63*	10.92*
		(5.39)	(5.31)
응시횟수		24.79***	21.79***
		(3.12)	(3.16)
학습기간		1.64ns	1.71ns
		(1.01)	(0.99)
학습시간			19.03***
			(5.03)
R^2	0.22%	28.91%	31.7%
F	0.78ns	35.17***	32.09***
(df)	(1,349)	(4,346)	(5,345)
RMSE	127.34	107.95	105.93

Note: 1) 변수의 각 칸의 값은 추정된 회귀분석 계수값, (표준오차 값)
2) 응시횟수=토익 응시횟수; 기간=토익 준비기간; 학습시간=일일 토익 학습시간; 영어능력향상=토익을 '영어능력향상 도구'로 보는 요인 측정 점수
3) ns=non-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표 6> 토익 응시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 요구' 요인과 변수들 간 상관관계(n=351)

	(1)	(2)	(3)	(4)	(5)	(6)	(7)
(1)학년	1.00						
(2)성별	-0.06^{ns}	1.00					
(3)응시횟수	0.40^{***}	-0.04^{ns}	1.00				

(4)기간	0.28***	-0.09ns	0.47***	1.00			
(5)학습시간	0.19**	0.01ns	0.32***	0.14**	1.00		
(6)토익점수	0.32***	-0.19***	0.52***	0.32***	0.33***	1.00	
(7)사회적 요구	0.27***	0.01ns	0.13*	0.02ns	0.05ns	0.06ns	1.00

Note: 1) ns=non-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2) 응시횟수=토익응시횟수; 기간=토익준비기간; 학습시간=일일토익 학습시간; 사회적 요구=토익을 '사회적 요구'로 보는 요인 측정 점수

<표 7> 토익 응시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토익점수와 토익을 '사회적 요구'로 보는 태도 요인과의 다중회귀분석 결과(n=351)

	회귀분석 모델		
	모델1	모델2	모델3
상수값	524.41***	480.90***	468.49***
	(40.63)	(35.04)	(34.56)
사회적 요구	2.45ns	-1.41ns	-1.38ns
	(2.13)	(1.89)	(1.85)
학년		14.17*	12.68*
		(5.52)	(5.43)
응시횟수		25.16***	22.11***
		(3.16)	(3.16)
학습기간		1.32ns	1.43ns
		(1.01)	(0.99)
학습시간			18.69***
			(5.02)
R^2	0.38%	28.77%	31.52%
F	1.32ns	34.94***	31.77***
(*df*)	(1,349)	(4,346)	(5,345)
RMSE	127.24	108.06	106.10

Note: 1) 변수의 각 칸의 값은 추정된 회귀분석 계수값, (표준오차 값)
2) 응시횟수=토익 응시횟수; 기간=토익 준비기간; 학습시간=일일 토익 학습시간; 사회적 요구=토익을 '사회적 요구'로 보는 요인 측정점수
3) ns=non-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토익 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토익을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생각, 토익은 사회적 요구)와 토익 학습 효과(토익 점수)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총 652명의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토익 학습 관련 기본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절반이 조금 넘는 351명(54%)의 학생들이 토익 응시 경험이 있었고 평균 토익 응시 횟수는 약 1회, 평균 토익 응시 준비기간은 8개월, 하루 평균 토익 학습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다.

토익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토익 점수와 토익에 대한 태도와의 연관성의 경우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생들의 토익관련 다른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더라도 토익 점수가 높은 경우 토익을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보는 태도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토익 점수가 높은 경우 토익을 사회적 요구로 생각하는 태도 점수는 역시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고학년일수록 토익을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은 낮아지고, 토익을 사회적 요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토익 학습과 관련한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면 토익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토익 점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토익 학습관련 수업개발 및 교수방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생 토익 학습자들은 토익에 대해 각자 특정한 태도를 가지고 토익을 학습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인 측면인 토익 점수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토익 수업 및 교재를 개발할 때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관련된 요소들

의 반영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는 토익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는 학년과의 단순 상관관계에서는 고학년일수록 영어능력 향상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낮아지고, 사회적 요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졌지만, 이러한 토익에 대한 태도가 토익 점수와는 큰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영향으로 변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정미, 김성애,「멀티미디어 활용 영어수업 사례 연구: 교양영어 교과목으로 온라인 토익수업의 학습효과」,『새한영어영문학』51, 새한영어영문학회, 2003, pp. 277-301.

성창섭,「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TOEIC 응시에 대한 인식 연구」,『언어과학』19, 언어과학회, 2012, pp. 119-130.

이동명, 홍광희, 황규홍,「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시험 응시에 대한 반응연구」,『새한영어영문학』55, 새한영어영문학회, 2013, pp. 233-248.

이명관,「영어학습전략과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 토익성적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교육평가연구』24, 한국교육평가학회, 2011, pp. 377-399.

주미진,「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이용한 토익수업의 효과성 연구」,『언어과학』16, 언어과학회, 2009, pp. 84-102.

신광인, 오치성,「대학 교양필수과목으로서의 토익수업의 효과」,『언어학연구』24, 한국중원언어학회, 2012, pp. 125-137.

Allison, P., *Missing data.*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2.

부록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지]

Part 1.

1. 학과: _____
2. 학년: _____
3. 성별: 남____ 여____
4. 토익을 응시해 본 적이 있다_____ 없다_____
5. 토익을 응시해 본적이 있다면 응시 회수는? _____ 회
6. 토익 공부를 한 기간은? 6개월 미만, 약 1년, 약 2년, 약 3년 이상
7. 1일 평균 토익 공부시간은?
   1시간 미만, 약 1시간, 약 2시간, 약 3시간, 약 4시간,
   약 5시간, 약 5시간 이상
8. 가장 최근에 응시한 토익 시험의 점수대는?
   400 미만, 500점대, 600점대, 700점대, 800점대, 900 이상

Part 2.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역으로(reversed) 코딩(coding)된 문항.

1. 토익은 영어 실력과 상관없다.†
2. 토익은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3. 토익은 사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치는 시험이다.
4. 토익은 영어 실력보다는 성실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5. 토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6. 토익은 문제 푸는 요령이 점수를 좌우한다.
7. '토익스피킹'은 영어회화에 도움이 된다.
8. 토익은 필요 없는 시험이다.†

9. 토익은 영어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 토익은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11.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토익 공부 이외에 다른 영어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12. 토익은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13. 토익 공부는 대학 입학 후 빨리 시작해야 한다.
14. 토익 공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다.
15. 토익 공부는 장기간에 꾸준히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다.
16. 토익 공부를 할 때, 그룹 스터디를 해야 한다.
17. 토익 공부는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18. 토익 공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9. 토익은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20. 토익 점수가 높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기본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21. 토익 점수에 따라 졸업 후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
22. 토익은 문제 패턴 연습만 많이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23. 영어 실력 평가를 위해서 토익이 아닌 다른 영어평가가 필요하다.
24. 토익 성적 제출이 미제출 보다는 취업에 유리하다.
25. 토익 준비를 위해서 휴학을 하고 토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26. 토익 시험은 기업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만을 위한 시험이다.
27. 토익 점수는 영어실력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화된 시험이다.
28. 토익은 공인인증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29. 성공적인 회사생활과 토익 점수는 상관이 없다.†
30. 학과 특성이 영어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토익점수가 필요없다.†
31. 단기간에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영어의 기본실력이 있어야 한다.
32. 토익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33. 토익 응시 횟수가 많을수록 토익 점수가 높다.
34. 영어 실력은 토익 점수가 아니라 영어회화 실력이다.
35. 토익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다.

A Study on Korea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TOEIC and Their TOEIC Score

Lee, Dong-Myung · Hong, Kwang-Hee · Hwang, Kyu-Hong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TOIEC and their TOEIC scores. Specifically, the students' two attitudinal factors(TOIEC as an instrument of improving English ability and TOEIC as social needs) were examined in relation to students' TOEIC scor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questionnaire from a total of 652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located in Busan, Korea. The findings are twofold: (1) Juniors and seniors tend to have lower scores on TOEIC as an instrument of improving English ability and to have higher scores on TOEIC as social needs; (2) students' scores on the attitudinal facto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OEIC test scores.

Key words: TOEIC, College Students' Attitude, TOEIC Score

이동명
소속: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1
전화번호: 051-200-7041
전자우편: dmlee@dau.ac.kr

홍광희
소속: 영남대학교 영어교육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전화번호: 053-810-3152
전자우편: hkwangh@yu.ac.kr

황규홍
소속: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1
전화번호: 051-200-7051
전자우편: kyu@dau.ac.kr

이 논문은 2013년 7월 8일 투고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31일 게재 확정함.